

강진군, 주작산 일대에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

주작산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선정 58억 예산 투입 2027년 완공 목표
짚와이어체험·등산로·체험공간 등 다양한 지역사회 의견 적극 반영

강진군이 주작산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20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작산 일대에 다양한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고,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자연 속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 58억원을 투입하며, 내년부터 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조성될 주요 시설로는 짚와이어를 활용한 모험체험 시설과, 자연과 어우러진 등산로, 산림 체험 공간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산림 레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강진의 주작산은 수려한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오래전부터 인정받아 온 명산으로 이번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은 강진의 자연을 관광 자원으로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 역시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것은 물론 건강한 여가 문화를 확산하고 지

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은 "이번 주작산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으로 강진의 아름다운 자연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강진군의 자연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제시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영암군, '문화 두드림' 캠프 성료 청소년 참여기구 역량 강화

영암군청소년센터는 지난 15~17일 경상북도 경주시와 포항시에서 청소년 참여기구 역량 강화 캠프 '문화 두드림'을 성료했다.

20일 영암군에 따르면 청소년이 바라는 문화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열린 이번 캠프에서는 청소년센터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연합회의 청소년 위원 27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각 참여기구의 활동 성과와 영암군 청소년 정책, 청소년센터 활성화 제안들을 발표·공유했으며, 청소년 프로그램 의견 제안, 위원 교류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또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에는 경주 동궁, 월지, 경주월드, 포항 랜드마크 스페이스워크 등에서 역사, 문화 유적지 탐방을 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탁은규 청소년관장은 "참가자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선·후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는 반응이었다"면서 "앞으로 참여기구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 모두가 함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영암 지역사 조명 학술대회 개최 선사~현대 역사 연구 현황 논의

영암군이 주최하고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공공역사연구소가 주관하는 2024년 지역사 학술대회 '영암 지역사 연구 현황과 과제'가 21일 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서 열린다.

20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선사시대부터 해방 이후 현대까지 영암군의 역사 연구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로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을 밝히고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살피는 행사다.

이정선 조선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학술대회 주제 발표는 총 5개로 구성돼 있다.

순서는 △천선행 조선대 교수의 '영암 지역 선사문화의 분포와 전개' △손성필 조선대 교수의 '고려·조선시대 영암 도갑사의 역사와 위상' △권수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영암지역 향약자료와 그 특징' △최은진 한국외대 교수의 '일제하 영암 영보정 사건과 지역사회' △노영기 조선대 교수의 '해방 후 영암지역의 변화와 학술' 등으로 진행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학술대회로 영암군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더 확고하게 만들 것이다. 지역의 역사적 사실과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활용하는 일에 더 많은 군민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한 땀의 여유展' 연다

해남규방공예연구회

해남군 아트마루 전시실에서 내달 8일까지 해남규방공예연구회의 '한 땀의 여유展'이 열린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규방공예는 조선시대 양반집 규수들이 바느질로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만들었던 데서 유래해 현재까지 전승 발전된 한국의 전통공예다.

해남규방공예연구회는 지난 2014년 미황사 괘불재 조각보 전시를 시작으로 2016년 자수로 표현한 공재의 그림 전시, 2019년 바늘잡지 전시회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규방공예를 연구하고 작품을 제작해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해남규방공예연구회 회원인 김정희, 노숙경, 박미성, 성은미, 신영희, 윤숙연, 정은하, 정진영 작가 등 8명이 참여해 조각보와 문발, 아기웃 등 25점의 규방공예 작품을 선보인다.

각기 다른 색감의 조각보를 한 땀 한 땀 규방 바느질로 작업해 완성한 작품들을 해남에서 만나 볼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지난 15일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하고저수지 일원에서 열린 '가래치기' 행사에 지역민들이 참여해 물고기를 잡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전통 어업유산 '가래치기' 체험

전통 어업유산인 '가래치기' 행사가 지난 15일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하고저수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0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됐으며 전통 어업 방식을 계승하고 알리기 위해 병영발전협의회가 주관해 개최했다.

가래치기는 병영면 일대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어업 방식 중 하나로 '가래'

라는 전통 도구를 사용해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는 형식이다.

강진군은 가래치기 복원을 통해 어업 활동이 단순한 생업 수단을 넘어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강조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목적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에는 어업유산을 사랑하는 지역 주민 약 30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현장에서는 기념식과 더불어 직접 물고기를 잡아보는 체험행사가 마련돼 모두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이병철 강진 부군수는 "병영면의 전통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고 미래로 이어가려는 중요한 작업이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전통 계승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전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신안군, 슬로시티 시민 강사 양성 주민들 대상 읍면별 교육 실시

신안군은 21일까지 신안군 가족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슬로시티 시민 강사 양성을 위한 자격증 과정 중 슬로라이프 디자이너과정을 추진한다.

20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슬로시티 이념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시민 강사(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시키고자 마련됐다.

고흥군은 내년부터 교육 과정을 수료한 슬로시티 시민강사를 활용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읍면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국제슬로시티연맹 한국슬로시티본부(대표 손대현)에서 슬로시티와 주민공동체의 행복, 슬로시티 푸드, 국내 외 해외사례, 자격시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이래 신안군의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슬로시티와 함께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하고 주민이 행복해지는 슬로시티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완도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청년 포럼' 성료

강연·팀별 과제 발표·현장 답사 등

완도군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완도읍과 신지면, 청산면 일원에서 '2024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청년 포럼'을 개최했다.

20일 완도군에 따르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청년 포럼'은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를 돕고 연구, 생태 관광, 교육 등 생물권 보전과 발전을 위한 청년 활동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전북 고창에서 처음 개최돼 올해로 네 번째이며 이번 포럼에서는 참가자 26명 모집에 무려 150여명이 지원할 정도로 포럼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감이 높았다.

포럼 첫째 날에는 김현 완도 부군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조도순 공동위원장(현 국립생태원장), 손정임 상임 부위원장(현 국립공



완도군은 지난 11~14일 신지면, 청산면 일원에서 '2024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청년 포럼'을 진행했다. 완도군 제공

원공단 자원보전 이사)의 생물권 보전지역 증진을 위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또 완도군 이문교 문화관광해설사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완도 생물권 보전지역 소개 및 청년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둘째 날에는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해양치유와 해양문화치유·기후치유를 체험하고 완도수목원을 방문했으며, 셋째 날

에는 청산면 상서 명품 마을 생태 탐방, 장보고 기념관과 장도 유적지, 완도타워 등을 방문했다.

마지막인 넷째 날은 팀별 과제 발표와 현장 답사를 통해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생물권 보전지역의 노력에 대해 배우고 생물권 보전지역에서의 청년 활동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 후 결과를 발표하며 마무리했다.

완도=정태영 기자